

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6년 6월 22일 · 제362호
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총괄 이성우 실장,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

Contents

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NYK, 요코하마 LNG 벙커링 터미널 타당성 조사 참여
2.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스케줄 신뢰성 소폭 개선 전망
3. 롱비치항, 선박 배출가스 처리기술 강화
4. 남아프리카 공화국, 항만 확장에 대규모 투자

| 물류시장동향 |

1. DB Schenker, 중동 첫 물류센터 오픈
2. 철도를 통한 중국의 대 러시아 신선식품 수출 급증

| 공지사항 |

1. 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
2.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



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NYK, 요코하마 LNG 벙커링 터미널 타당성 조사 참여

- 일본 국토교통성 주도로 추진하는 요코하마 LNG 벙커링 터미널 타당성 조사 사업에 NYK가 참여하기로 함
 -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요코하마를 LNG 벙커링 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 및 인프라 요건을 검토할 예정임
 - 올해 연말까지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2016년 6월 9일 타당성 조사 운영위원회가 개최됨
- NYK는 그룹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따라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함
 - 2015년 8월, NYK는 일본 최초의 LNG 추진 예인선 Sakigake호를 인도받았음
 - 뿐만 아니라 NYK는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자동차 운반선과 LNG 벙커선 건조를 시작함
-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정부 또한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에 본격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LNG 벙커링 시장 선점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
- 따라서 우리나라도 LNG 벙커링 시설에 대한 조속한 준비와 경쟁력 있는 사업구도 마련을 통해 시장선점 경쟁에 참여해야 할 것임

요코하마항 전경



자료 : www.lloydlist.com, 2016.6.16.

자료 : www.lloydlist.com, 2016.6.1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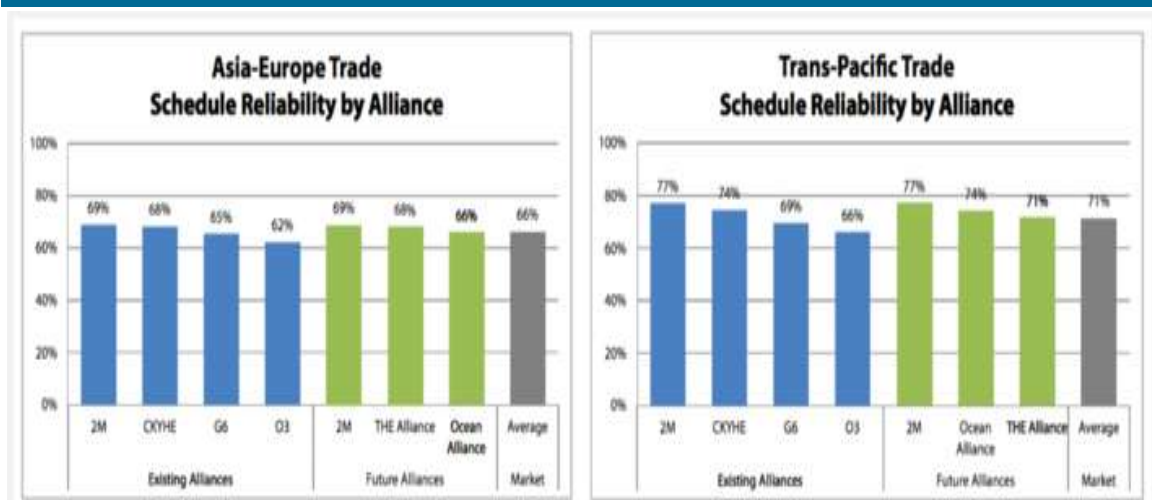
김은우 전문연구원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

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스케줄 신뢰성 소폭 개선 전망

- 내년 4월에 출범하는 신규 얼라이언스의 스케줄 신뢰성이 현존 얼라이언스 체제와 비교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
 - CargoSmart는 현재 운영되는 얼라이언스인 2M, CKYHE, G6, O3 그룹과 내년에 출범할 신규 얼라이언스인 2M, Ocean Alliance, THE Alliance 그룹 간의 스케줄 신뢰성 변화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
 - 아시아-유럽 항로, 북미-태평양 항로 등을 운항하는 글로벌 19개 컨테이너 선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얼라이언스와 신규 얼라이언스의 운영성과를 비교·분석함
 - 스케줄 신뢰성에 대한 분석 결과, 아시아-유럽 항로는 신규 얼라이언스가 체결됨으로서 항로 평균치(66%)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고, 북미-대서양 항로의 스케줄 신뢰성(62%)은 가장 낮을 것으로 분석함

주요 항로별 스케줄 신뢰성 비교(현존 얼라이언스 vs. 신규 얼라이언스)



자료 : CargoSmart.com

- 아시아-유럽 항로의 경우, 현존과 신규 얼라이언스 모두 2M의 스케줄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
 - 17개 컨테이너 선사의 운항 스케줄 16,000건을 대상으로 아시아-유럽 항로의 스케줄 신뢰성 분석을 수행함
 - 평균 스케줄 신뢰성은 약 66%로 조사되었는데, 현존 얼라이언스 중 2M(Maersk, MSC)이 69%로 가장 높은 스케줄 신뢰성을 보였고, CKYHE(68%), G6(65%), O3(62%)순으로 분석됨
 - 신규 얼라이언스의 경우, 2M은 기존과 동일한 69%의 스케줄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고, THE Alliance가 68%, 그리고 Ocean Alliance가 66%가 될 것으로 전망함
- 북미-태평양 항로의 경우, 현존과 신규 얼라이언스 모두 2M의 스케줄 신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



- 북미-태평양 항로의 경우 19개 컨테이너 선사의 9,000건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바탕으로 스케줄 신뢰성 분석을 수행함
- 평균 스케줄 신뢰성은 약 71%로 조사되었고, 아시아-유럽 항로와 동일하게 현존 얼라이언스 중 2M(Maersk, MSC)의 스케줄 신뢰성이 77%로 가장 높고, OKE(74%), G6(69%), O3(66%)순으로 분석됨
- 신규 얼라이언스의 경우, 2M은 기존과 동일한 77%의 스케줄 신뢰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고, Ocean Alliance가 74%, 그리고 THE Alliance가 71%가 될 것으로 전망함

자료 : www.cargosmart.com / www.joc.com 2016.6.21.

이건우 전문연구원

051-797-4784, gunwoo@kmi.re.kr



롱비치항, 선박 배출가스 처리기술 강화

- 롱비치항은 현지 기업과 함께 캘리포니아 청정대기규칙(Clean air rules)을 충족시키는 화물선 배출가스처리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임
- 2014년 발효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정박해있는 모든 컨테이너선과 냉장화물선의 50%는 선박의 보조엔진을 꺼야하며 인체에 해로운 그을음과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육상전력을 연결해야 함
 - 해상터미널 운영사와 선사는 효과를 증명하는 경우 대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음
 - 동 법은 벌크, Break bulk, 로로선에는 적용되지 않음
- 따라서 롱비치항은 Advanced Environmental Group LLC(AEG)가 개발한 롱비치기반의 해양배출가스처리시스템의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
 - 2015년,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(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)가 인증한 AEG의 첨단 해양 배출가스 제어시스템(Advanced Maritime Emission Control System, AMECS)은 촉매반응기, 세정 장치와 디젤필터를 결합하여 선박으로부터 직접 미세먼지,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을 처리함
- AMECS는 특정선박과 엔진유형에 대해 광범위한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MSC, Hapag-Lloyd와 같은 컨테이너 정기선에 정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음
 - AEG 시스템은 선박연통의 배출가스를 포집하고, 먼지와 가스를 후처리장치와 미립자필터로 전달함
 - 부유식 장치는 연통에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함

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



- 롱비치항은 설계가 다르고 노후 된 선박엔진을 장착한 비컨테이너선박에 대해서도 AEG가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 - 롱비치항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정박한 선박에 대한 배출가스 감축 규칙을 다른 선박에도 확대할 수 있는 '지속가능한 화물운송동계획(Sustainable Freight Action Plan)'을 제안해왔으며 내후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함
 - 따라서 롱비치항은 대안기술을 통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함. 이는 현행 컨테이너터미널 정박시 육상전력 공급장치(Cold-ironing)로는 실현가능하지 않고, 선박개조 및 터미널에 대한 기술투자는 비용 효율이 낮기 때문임
 - AEG는 6월말까지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로부터 시범사업에 대해 인증을 받고, 9월말에 다양한 유형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6.6.17

전우현 연구원
051-797-4615, jwh0321@kmi.re.kr



남아프리카 공화국, 항만 확장에 대규모 투자

-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향후 7년간 화물처리능력을 연간 4%씩 증가시키기 위해 자국의 주요 항만 확장 사업에 32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남아공의 주요 항만은 9개로 2015년 기준 2억 5,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, 이를 2022년에 3억 1,400만 톤까지 증가시킬 예정임
 - 2046년에는 5억 4,300만 톤의 처리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2015년 남아공 항만은 총 500만 TEU의 물동량을 처리했으며, 2022년에는 640만 TEU, 2046년에는 1,390 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
 -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으로 매년 8,200만 톤이 수출되고 있으며, 철광석이 6,200만 톤으로 그 뒤를 이음
 - 수출입 컨테이너 및 액체 벌크 화물은 연간 3,500톤이 처리되고 있음
 - 남아공의 산업 기반은 광산, 철강, 석유화학, 자동차 등임
- 금융, 산업 및 광업 허브인 Gauteng에 근접해 있는 항만은 총 4개(Durban, Cape Town, Port Elizabeth, Port of Ngqura)로 이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관문이라 할 수 있음
 - 남아공의 대표 항만이자 최대 항만인 Durban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며, 자국의 하루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5%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
 - Cape Town은 과일, 포도주 및 채소류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
- Durban, Port Elizabeth 및 East London 항만은 자동차 수출입 전문 항만으로, 자국의 자동차 물동량 수요를 각각 71%, 19%, 10%씩 처리하고 있음
 - 지난해 총 76만 4천개의 자동차 부품을 처리했으며, 2022년에는 110만개, 2046년에는 270만개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East London은 남아공에서 유일하게 강변에 위치한 항만으로 자동차 외에도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
- 항만 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항만당국과 터미널 운영사가 각각 50%씩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힘

자료 : www.joc.com, 2016.6.15

신수용 전문연구원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물류시장동향

DB Schenker, 중동 첫 물류센터 오픈

- DB Schenker가 중동 첫 자가 물류센터를 오픈함
 - 201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개발되는 2.5만㎡ 규모의 물류센터는 두바이 물류시티(Dubai Logistics City ; DLC)에 위치함
 - 물류센터 내에는 7,200㎡의 부가가치 서비스 및 부품 운영을 위한 창고가 있으며, 창고에는 온도 조절 구역이 있음
- DB Schenker는 UAE 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물류센터를 오픈함
 - DB Schenker는 알막툼(AI Maktoum) 공항 및 E 611 도로와는 불과 몇미터, 항만과는 15분 거리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를 활용하여 글로벌 고객들에게 최상급의 통합된 운송 및 보관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2016.5.26.

김은우 전문연구원
051-797-4680, hisgrace@kmi.re.kr

철도를 통한 중국의 대 러시아 신선식품 수출 급증

- 중국 내몽고자치구 세관에 따르면, 최근 들어 철도운송으로 내몽고 만저우리, 얼렌하오터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되는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출이 크게 증가함
 - 만저우리(滿洲里) 세관은 작년 3월부터 신선식품 통관을 시작했으며,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냉장·냉동 기능을 갖춘 열차가 모스크바까지 직행하고 있음
 - 이러한 화물열차 서비스 확대에 따라 만저우리에서는 작년 한 해 1,851.4톤의 신선식품을 수출 통관함
 - 또한 얼렌하오터(二连浩特) 세관은 올해 1월~5월 동안 1,024.7톤의 신선식품을 러시아로 수출 통관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.1배 증가한 수치임
 - 얼렌하오터 철도 당국도 신선식품 운송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을 약속함
- 러시아의 긴 겨울이 중국 농가들에게 신선 농산물의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, 중국 물류회사들도 중·러간 신선식품 교역 확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

자료 : www.chinadaily.com.cn, 2016.6.14.

김세원 연구원
051-797-4775, ksw@kmi.re.kr



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개최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에서는 아래와 같이 ‘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’를 개최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일시 : 2016년 7월 11일(월), 14:00~18:00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 중회의실A(지하 2층)
- 주최 : 해양수산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- 주요 소개사업

시간	세션	대상 사업	대상 지역
14:10~15:50	제1세션	수산물 콜드체인 물류사업	중국, 러시아
16:00~18:00	제2세션	고성장 물류시장 진출사업	인도, 인도네시아 등

- 참가신청 : 2016년 7월 10일(일) 18:00까지
 - 신청방법 : 별첨 참가신청서를 이메일(joohye915@kmi.re.kr / ksw@kmi.re.kr)로 송부
- 참가문의 : 김주혜 연구원(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)
김세원 연구원(051-797-4775, ksw@kmi.re.kr)

※ 본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,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『제11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』 참가신청서

- 일시 : 2016년 7월 11일(월), 14:00~18:00
- 장소 : 대한상공회의소(서울) 중회의실A(지하 2층)
- 주최 : 해양수산부
- 주관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
회 사 명	
-------	--

참가자 1

성 명		직 위	
부 서 명		이 메 일	
전화(사무실)		전화(핸드폰)	

참가자 2

성 명		직 위	
부 서 명		이 메 일	
전화(사무실)		전화(핸드폰)	

▶ 참고 사항

- 신청인원 : 참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.
- 신청기한 : 2016.7.10.(일) 18:00까지 선착순 접수
- 접 수 처 : E-mail (joohye915@kmi.re.kr / ksw@kmi.re.kr)
- 문 의 :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주혜 연구원 Tel.051-797-4779
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김세원 연구원 Tel.051-797-4775
- 기 타 : 참가비 무료



중소 · 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)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 · 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● 대상기업

-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· 중견기업
-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기업 포함
 - ※ 중소 · 중견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기업

● 대상사업

- 해외 물류시설(물류단지 · 센터 · 창고, 항만 · 복합물류 터미널 등)의 개발투자운영 사업
-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· 지사 · 사무소 설립 사업
- 상기 관련 M&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

● 지원내용

1.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 · 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
- 현지 경제 · 무역 · 인프라 · 물동량 현황, 투자 관련 법 · 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,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
-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

2.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, 현지 공동조사(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)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
-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
 - ※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
-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



- 지원사업별 신청방법

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'(별첨 1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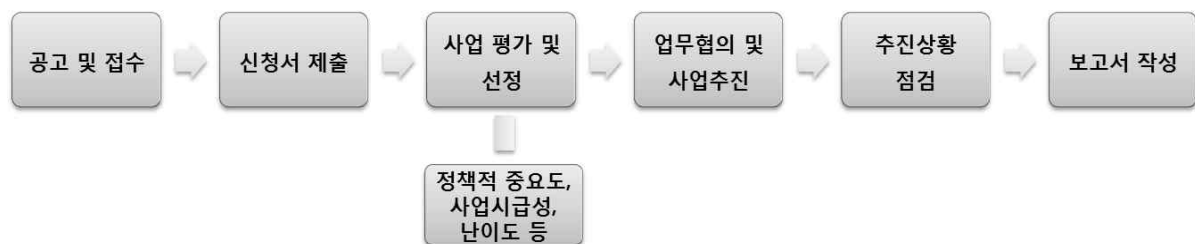
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 신청
- 신청방법 : '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'(별첨 2)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
 - ※ 담당자 : 송주미 전문연구원(jmsong@kmi.re.kr), 김주혜 연구원(joohye915@kmi.re.kr)

- 신청서 평가 및 기타

- 선정기준 :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·사업성·난이도, 정책적 중요도,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·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·지원
- 선정결과 발표 : 신청서 접수 후 2~3주 이내 개별 통지
-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(송주미 051-797-4773 / 김주혜 051-797-4779)로 문의
 - ※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

- 사업 추진절차



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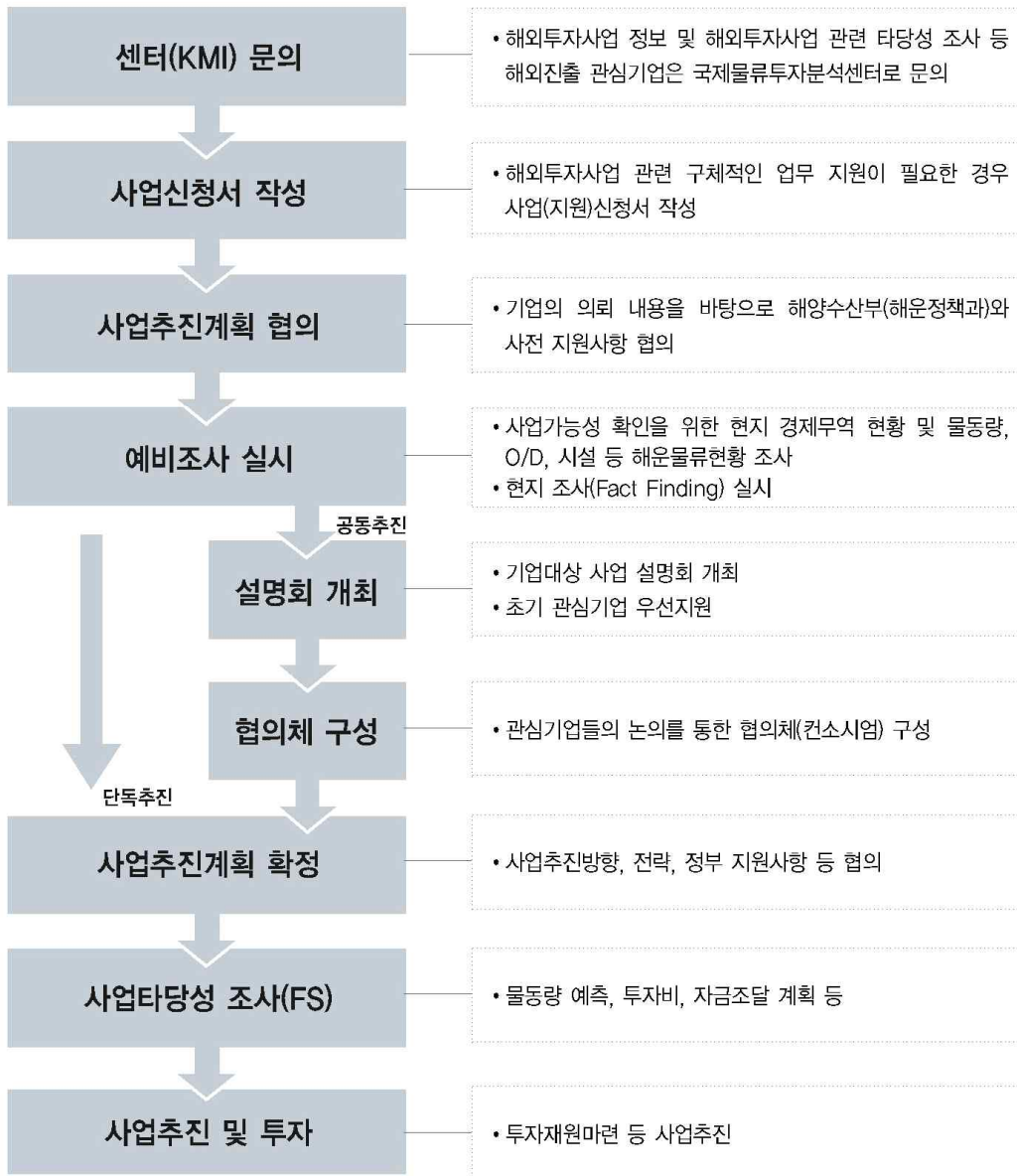
별첨 2

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

업체 개요	기업명		업 종	
	대표자		종업원수	
	소재지			
	자본금		매출액 (전년도)	
	사업자 등록번호		설립일자	
조사대상 사업개요	사업명			
	국가/지역			
※ 별첨 자료요청 (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공동조사 대상 사업 주요내용을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5~10쪽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·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· 사업의 목적 · 사업 세부내용 (대상지, 사업 분야, 사업규모, 사업방식 등) · 사업추진계획 · 현지시장 조사계획 · 기타 현안사항				
지원요청 내용	※ 필요시 별첨 자료로 제출가능			
신청자	부서		Tel	
	직위		Fax	
	성명		E-mail	
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2016년 월 일 신청기업 : 대 표 자 : (인)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귀하				
첨부서류 목 록	※ 공동조사 대상사업 주요내용 및 지원요청 내용 별첨자료			



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